일본기업, 스마트폰 특수 "싹쓸이"

소형 액정패널 및 편광판 보호필름 호조 … 도시바·후지필름 수혜

애플(Apple)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세계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일본기업들의 수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, 일본 전자기업인 도시바(Toshiba)는 2010년 4-12월 영업이익이 1400억엔(약 1조8800억원) 정도로 전년동기대비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도시바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소규모 액정 패널과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등을 제조해 애플의 아이폰(i-Phone)과 아이패드(i-Pad)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요증가에 대응해 Ishikawa에 액정 부품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.

도시바 외에도 스마트폰 관련부품이나 기기를 생산·판매하는 곳의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.

액정 패널에 쓰이는 편광판 보호필름을 생산하는 후지필름(Fuji Film)의 2010년 4-12월 영업이익은 1224억엔(1조6000억원)에 이르러 2009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.,

반도체 기기 생산기업인 린텍(Lintech)의 2010년 4-12월 영업이익도 170억엔으로 2009년 같은 기간의 약 2배에 달한다.

Taiyo Holdings은 스마트폰 회로기판용 잉크를 제조하는데, 2010년 영업이익이 40% 늘었고, 단말 제조공정에 쓰이는 계측기기를 만드는 Anritsu의 영업이익도 43억엔으로 2.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1/31>